

우리 모두 신라의 마음 닮았으면...

산문박의 禪

설치미술가 전수천 씨

“토우(土偶) 만들기에 심취하다 보면 어느새 머릿속이 맑아집니다. 작품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토우 제작은 마음 씻기의 역할을 하는데 그것은 창작의 중요한 관문이 되기도 합니다.”

베니스 비엔날레 특별상

지난 6월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1천3백50개의 토우와 산업폐기물, 강물과 숲을 담은 영상화면 등을 30명의 공간에 전시시켜 특별상을 수상했던 전수천 씨의 말이다. 그는 평면 작업과 설치미술, 퍼포먼스 등 다양한 기법을 넘나들며 자신의 예술적 주제를 표출하는 변화 속에 살아 있는 예술가다.

최근들어 작품의 주요 소재로 선택하고 있는 토우는 그에게 두가지 의미를 갖는다. 하나는 토우 자체가 갖는 상징성이다. 신라의 맑은 하늘과 신라인의 투박하고 깨끗한 심성을 말해 주는 토우들이 현대인의 삶의 언저리로 놓여질 때 전해주는 아이러니와 회귀본능들을 강하게 시사하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의미는 그 제작 과정이 자

학히 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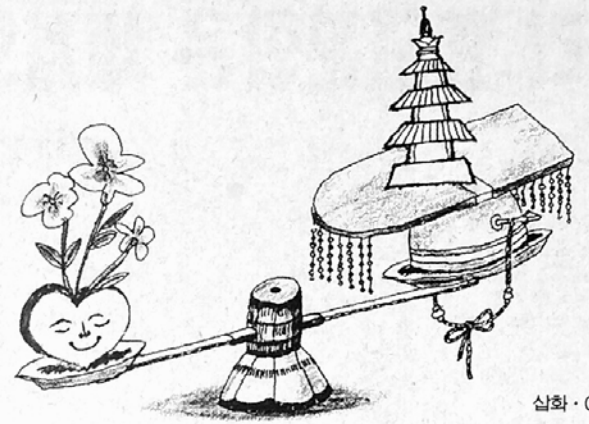
예술 가운데서도 설치 미술은 특히 그 메시지가 강하기 때문에 적절한 위치가 필요하다. 인간과 자연 사이, 인간과 인간사이 혹은 자연과 자연 사이의 좌표를 분명히 잡지 않으면 작가의 의도가 빛나갈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전씨는 적절한 자리잡기의 의미를 마음 씻기 공부로 터득한다는 것이다.

하나의 작품을 구상하고 나면 그 작품의 부분과 전체를 함께 마음 속에 갈무리 하고 부분에서 전체로 영역을 넓혀 나가는 것이 설치 미술의 순서다.

최근 토우 소재로 작업활동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부분에 집착하면 전체가 되지 않고 전체에 집착하면 부분이 허술해 지나가요.”

그렇기 때문이다. 때문에 전씨는 맑은 정신의 소유자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는 인간을 위해 고뇌하면서 인간의 삶이 갖는 무지를 질타하기 위한 스스로의 자리를 맑은 마음과 정신에서 찾



삼화·이기선

늘 겸손하며 남 이롭게 해야

“얼마나 백점 먹었어.”
“얼마나 금메달 먹었어.”
말들이 참으로 이쁘다. 어린 아이들의 순진한 목소리로, 자랑하고픈 마음은 끝까지 울음의 메달을 목에 건 선수들의 늠름한 모습은 장하기도 하다.

그런데 양무제가 달마스님께 물은 질문은 엉뚱하게 비껴가고 말았으니 한번 짚어볼만한 일이다.

“달마스님이시여 나는 양나라 제왕으로서 양나라와 불교를 위하여 절도 많이 세우고 탑도 높이 세웠으며, 경론도 번역하고, 스님들에게 일체의 공양을 드렸으니 그 공덕이 어떠한가.” “아니 제왕이시여 아무런 공덕도 없습니다.” 양무제가 바라는 것과 달마의 대답은 심만팔천리나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의당히 할 수 있는 사

람이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 거기에 별다른 공덕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양무제는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하여 공덕을 자랑하고 있었으니 어찌구무 없는 남재가 아닌가. 여기에 들어 맞는 해답의 말씀이 있다. 육조단경이다. 한번 살펴 보겠다.

“아무 공덕도 없습니다”

“성품을 보는 것이 공(功)이요, 평등은 덕(德)이니 생각과 학문이 없어 항상 본성의 진실모양을 보는 것이 공덕이 되는 것이다. 안으로 마음이 겸손하여 스스로를 낮추면 공이요, 밖으로 예절을 청하면 덕이다. 또 자성이 만법을 건립하는 것이 공이요, 마음이 생각을 여윈 것이 덕이니 만약 공덕 법심을 찾는다면 대만 이에 의하여 지어 아할 것이 참 공덕이니라”고 하였다.

이 말은 육조 혜능의 사상

일 수도 있고 부처님의 정법 안장에 있는 심수(心髓)를 밝힌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참성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분간하지 못하면 중생의 욕망이 활동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성품이 맑고 무생법인의

로 단경의 말씀은 참으로 적절한 교시가 아닐 수 없다. 양무제, 그는 위대한 제왕이었다. 제왕의 권력과 위력으로 절을 세우고, 탑을 쌓고, 경을 번역하고 스님을 공대하는 그것은 당연한 업사가 아닌가. 그런데 서천축에서 오신 달마스님을 뵈자 개구일성 공덕의 치사를 받고 싶었으니 허망한 망심의 장난이 아니었던가. 여기에 정문일침(禪門一畵)을 쓴 것이다. 양무제는 피 한방울 흘리지 아니 하고 후이 난 것이다.

이웃을 기쁘고 행복하게

달마 그는 무엇을 심어 주려고 하였을까. ‘바람없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양무제는 보람의 흔적이 있어야 하고 명예존경이 가슴에 번쩍거리

아만 기쁨을 얻는 것이다. 이것은 서로가 극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한분은 세속적 명예, 한 분은 선가의 마음으로 살려고 한 것이므로 별의 해답이 아니 나올 수 없는 것이다. “얼마나 금메달 먹었어.” 이 말은 천진무구하다. 각고의 승부욕에서 상을 받는 것은 타당한 일이다. 세속사에는 모두 승부사가 맴돌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출세간의 길은 승부사가 아니고 생사를 결단하는 도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절 탑 경 공대가 아무런 공덕이 될 수 없는 것인데 양무제가 요구하였으니 달마의 해답은 명확하게 갈파한 것이다.

“아무런 공덕이 없다.” 우리는 일을 하면서 공덕을 바라지 않는 일은 없을까. 이치를 알면 달마가 서쪽으로 가는 뜻을 알 수 있고 마음이란 부질없는 것에 매여 살 수 있다는 참다운 공덕을 깨우칠 수 있을 것이다.

이치란 공이 되는 것은 반야의 슬기가 환하게 밝혀져 일체중생의 번뇌를 씻어줌이다. 덕은 평등보시로서 모든 중생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안으로 겸손과 자애모음이 갖추어 지는 것이 공이 되고 밖으로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공대하는 예절이 나와야 한다.

조그만 알음알이 재산으로 얼굴을 붉히면서 빛대어 상대를 무시하는 사람은 어떤의 덩어리가 땅 밖으로 벗어나려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예절과 공경이 내재된 아름다움으로 장엄되지 아니하면 오만한 인격체가 될 것이다. 그러

로 단경의 말씀은 참으로 적절한 교시가 아닐 수 없다.

양무제, 그는 위대한 제왕이었다. 제왕의 권력과 위력으로 절을 세우고, 탑을 쌓고, 경을 번역하고 스님을 공대하는 그것은 당연한 업사가 아닌가. 그런데 서천축에서 오신 달마스님을 뵈자 개구일성 공덕의 치사를 받고 싶었으니 허망한 망심의 장난이 아니었던가. 여기에 정문일침(禪門一畵)을 쓴 것이다. 양무제는 피 한방울 흘리지 아니 하고 후이 난 것이다.

이웃을 기쁘고 행복하게

달마 그는 무엇을 심어 주려고 하였을까. ‘바람없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양무제는 보람의 흔적이 있어야 하고 명예존경이 가슴에 번쩍거리

아만 기쁨을 얻는 것이다. 이것은 서로가 극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한분은 세속적 명예, 한 분은 선가의 마음으로 살려고 한 것이므로 별의 해답이 아니 나올 수 없는 것이다. “얼마나 금메달 먹었어.” 이 말은 천진무구하다. 각고의 승부욕에서 상을 받는 것은 타당한 일이다. 세속사에는 모두 승부사가 맴돌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출세간의 길은 승부사가 아니고 생사를 결단하는 도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절 탑 경 공대가 아무런 공덕이 될 수 없는 것인데 양무제가 요구하였으니 달마의 해답은 명확하게 갈파한 것이다.

“아무런 공덕이 없다.” 우리는 일을 하면서 공덕을 바라지 않는 일은 없을까. 이치를 알면 달마가 서쪽으로 가는 뜻을 알 수 있고 마음이란 부질없는 것에 매여 살 수 있다는 참다운 공덕을 깨우칠 수 있을 것이다.

이치란 공이 되는 것은 반야의 슬기가 환하게 밝혀져 일체중생의 번뇌를 씻어줌이다. 덕은 평등보시로서 모든 중생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안으로 겸손과 자애모음이 갖추어 지는 것이 공이 되고 밖으로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공대하는 예절이 나와야 한다.

토우이용 설치미술 산업사회에 ‘자연회귀’ 강조 “나 자신을 담아내는 과정서 작품 스스로 탄생”

산을 수행 시킨다는 점이다. 각기 다른 표정에 몸짓도 갖가지인 작은 토우들을 만들어 가면서 전씨는 스스로의 마음을 씻고 정신을 맑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토우 만들기를 통해 작업 과정에서 자신을 숙성시키는 셈이니까 그 과정이 전씨에게는 매우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조상의 지혜와 삶에 대한 것을 위대한 현대인들에게 자연으로의 회귀를 일깨우는 것이 전씨의 작품세계에서 살아지는 충고들이다. 설치 작품을 통해 이야기 되는 자연으로의 회귀를 그는 “인간 본성의 발견 내지는 근원에 대한 사랑”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면서 “자나치게 자연에 대한 복귀를 요구하는 것도 무리가 따르는 것입니다. 조화롭지 못한 것은 언젠가 깨지는 법이니까요”라고 지적하는 전씨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놓여야 할 예술의 자리를 정

아내는 것이다. 그의 근작중 매우 눈길을 끄는 것이 ‘혹성 시리즈’이다. 혹성은 무중력 상태의 우주 공간을 떠도는 별이다. 그것은 인간의 삶과 매우 닮았다는 것이 전씨의 말이다.

“현대인의 방향은 대개가 풍요로움 속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욕심이 너무 많아 방황하는 것이 현대인들이죠. 떠돌이별의 정처 없는 행로를 인간이 그대로 걷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혹성을 주제로 한 일련의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전씨의 혹성시리즈는 떠돌다 사라지고 부딪히고 깨어지는 혹성과 인간의 삶을 연결시킨 것인데 거기에는 대부분 수행자를 연상시키는 사람의 그림자가 들어 있기도 하다. 또한 생성과 소멸의 끝없는 흐름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진정한 삶의 가치는 원형 철근으로 더

욱 강도높게 묘사되고 있다. 전씨는 그러한 원형의 조형물을 만들며 회오리바람이나 정수리, 바닷물의 흐름과도 통하는 어떤 질서를 느끼게 된다고 말한다. 아니 질서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질서를 배우고자 하는 생각이 더 강하다고 하는게 더 직접적인 표현일 것이다.

민족의 갈 길 작품통해 제시

“설치미술은 작가의 정신과 마음을 형체에 담아서 보여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작품이든 그 속에는 저의 마음이 깃들여져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읽고 느끼는가는 역시 감상자의 몫이 되겠지요.”

공복 50주년인 올해 공복절에 그는 DMZ 작업전에도 통일과 새로운 민족의 갈길을 제시한 조각을 한기림미술관 전시장에 내놓았다. 물론 그의 간절한 열

원을 담아 만든 작품이다. 또 그는 구조선총독부건물 해체식에서도 일제 잔재청산과 새로운 민족의식을 암시하는 대형 퍼포먼스를 기획했다. “말끔히 씻어낸 우리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하는 자리를 만들고 싶었다”는 것이 이들 작업의 이유다.

그가 보여 주고자 하는 마음, 그것은 바로 ‘진화의 끝은 인간 자신’이라는 명제이다. 과학의 발달과 물질의 발달은 결국 자연 회귀의 꿈을 낳게 되고 자연 회귀의 꿈은 인간의 마음 속에서 이뤄지는 것이란 사실을 그의 작품은 말하고 있는 것이다.

“작품을 만드는 것은 나 자신을 그 작품에 녹이는 과정입니다. 내가 녹아 있지 않은 작품은 남의 마음을 열 수 없습니다.”

임연태 기자



삼화불교대학생모집

◎ 각과 편입생 약간명 모집

1. 모집학과 및 안내

학 과	수업연한	모 집 인 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별전형 30%
불 교 학 과	2년	•주간 40명 •야간 20명	•고등학교 및 동등 이상 학력자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1통 •본교 소정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5매	•조계종 승려 포교사 (타종승려·포교사도 가능)
	4년	•통신 40명		
유아교육과(유아 포교과)	2년	•주간 60명 •통신 40명		
중 국 어 과	2년	•주간 40명 •야간 20명		
불 교 미 술 과	2년	•주간 20명		
신문방송과(불교포도과)	2년	•주간 40명 •통신 20명		

2. 학교연혁

- 1989. 7. 3 학교설립공고
- 90. 3 불교방송대학 불교학부, 유아교육학부 4년제 개교
- 90. 4 삼화불교대학으로 개명
- 90. 8 본교학생 37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
- 91. 3 전문부 주간·야간 2년제 개설
- 91. 8 본교학생 48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
- 91. 8 교육부 인정 고등학교 인수
- 92. 2 제1회 졸업생 배출
- 92. 7 국가인정 유아교사 2급 119명 자격취득
- 92. 8 본교 학생 29명 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
- 93. 2 제2회 졸업생 배출 유아교육과 95% 취업
- 93. 3 불교미술과·불교포도(신문방송과) 개설
- 93. 8 본교 학생 42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
- 94. 2 제3회 졸업생 배출
- 95. 2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자격 49명 취득
- 95. 2 제4회 졸업생 배출
- 95. 3 전문부 중국어과 개설
- 95. 8 중국남경 중의약대학과 자매결연

3. 특전

- 성적 우수자 각종 장학금 지급
- 법사 자격증·불교 유아포교사 2급 자격증 수여
- 성적 우수자 본대학 포교원·유아원 개설시 재정지원
-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동국대학교 대학원 과정 입학 가능

4.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95년 8월 23일까지
- 전형방법: 서류전형, 면접(미술과는 작품 1점 제출)

5. 원서교부 문의처

본교: 511-1080, 511-2026-8 조계사 앞 삼보원: 732-9904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학처로 문의 바람

부 산 불 교 교 육 대 학 교 리 반 6 기 생 모 집

본 대학은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사 양성 교육 기관으로서 교계의 대덕스님·교수·법사님을 모시고 체계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초 교리반 6기생을 모집하오니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불자들의 동참을 환영합니다.

1. 모집마감일 - 8월 28일(월)까지
2. 모집인원 - 100명 선착순 마감
3. 교육기간 - 6개월 → 95년 9월 ~ 96년 2월 (매주 금요일 14시 ~ 16시)
4. 입학식 - 9월 1일(금요일) 14시. 본 대학 강당
5. 등록금 - 입학금 2만원(교과서 제공) 수업료 월 2만원
6. 특전 - 교리반 수료자는 포교사반에 우선 입학할 수 있음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 사무과로 문의 바람

부산 불교 교육 대학 전화: 818-8658
팩스: 807-7351

서천 진구정 뒷문 성원 주차장 2층 화엄회관

주소: 우편번호 135-120 서천시 강남구 신사동 511-5

삼 화 불 교 대 학